

현대소설에 나타난 예수의 肖像

치올코프스키 지음 「성자에서 민중으로」

朴海鉉

중앙경제신문 문화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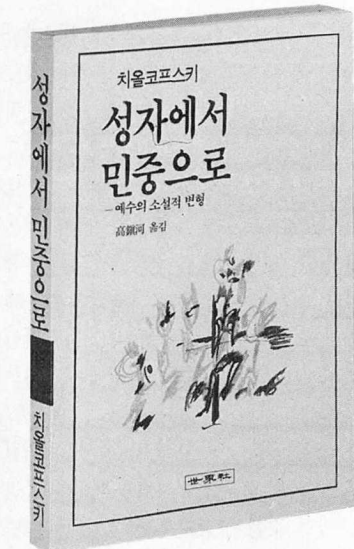
도스토옙스키는 장편 「백치」를 쓰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인물들 가운데 가장 완벽한 것은 예수와 돈키호테이다”라고 말했다. 신의 아들인 예수를 스페인의 어느 몽상가와 동렬에 놓는 것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기 힘든 신성모독이다. 그러나 예수를 메시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성서의 권위라는 베일을 벗기고자 한 작업은 서구에서 기독교가 지배문화로 자리잡는 과정 속에서도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성서의 질서를 현세에 세우려는 기독교도들의 영원한 화두거나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의 합리주의적 분석의 모티브이기도 하지만, 그 질문의 중요성은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구별을 가능케 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 질문에서 출발된 신학, 철학, 문학 등의 논의들에서 우리는 서구문화의 가장 큰 뿌리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정체성은, 서구의 문화가 성립되는 과정에서의 지배적 사유구조와 서구문화의 심층에 깔린 집단무의식 등을 함께 설명해주는 것이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그 질문이 가장 많이 그리고 폭넓게 이루어진 공간은 19세기 이후의 서구소설이다. 예수의 생애를 소설의 언어로 전기화하는 것,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의 생애를 추적하는 것, 예수를 천상의 메시아가 아니라 지상에서의 변혁자로 묘사하는 것, 예수를 한명의 남성으로 끌어내려 그의 인간적 고뇌를 그리는 것 등등의 방법으로 예수의 삶은 소설 속에서 무한대로 증폭되어 왔다. 그 증폭의 행렬은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는데, 서구의 소설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제국주의의 기차에 동승하면서 지구의 전체를 방문했으므로 오늘날에는 비기독교적 문화권에서의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활발하다.

예수의 삶과 현대소설의 만남

시인 고진하가 3년여의 번역과정 끝에 최근 펴낸 「성자에서 민중으로」(테오도르 치올코프스키 지음·세계사)는 서구의 현대소설에 나타난 예수의 초상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것은 서구의 소설에만 국한된 연구지만, 80년대 초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같은 소설이나 정호승의 「서울예수」, 김정환의 「황색예수전」 같은 시집들을 보유했던 한국문학의 체질에 비추어보면 매우 의미있는 텍스트로 삼을



만하다.

이 책의 역자는 “먼저 이 책은 일반적인 의미의 신학서나 신앙서적이 아니다. 이 책은 문학연구서이다. 저자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자는 신앙적인 관심에서보다는 문화적인 관심, 더 정확히 말하면 문학적인 관심에서 예수를 다루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원제가 「예수의 소설적 변형」(Fictional Transfiguration of Jesus)인 「성자에서 민중으로」는 헤세, 포크너, 스탕달, 카잔차키스, 그레이엄 그린, 쿨터 그라스 등 우리의 귀와 눈에 친숙한 서구 소설가들의 작품을 유형별로 분석하면서 예수의 삶과 현대소설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문학적 작업은 “이른바 현대 문학이론에 있어서, 문학이 종교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은 거의 무반성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에 있어서 종교와 문학은 예전에 그랬듯이 지금도 쌍둥이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평론가 김주연의 어떤 글을 떠올리게 한다.

「성자에서 민중으로」에서 다루는 것은 예수를 소재로 삼은 모든 서구소설이 아니다. 저자 치올코프스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대소설의 주인공의 삶에 예수의 역사적 삶이 어떻게 투입해 있고, 그 투입의 다른 이름인 예수의 소설적 변형이 서구의 정신사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저자는 따라서 예수의 소설적 변형이란 범주를 설정하고, 잡다한 형태의 예수전들 속에서 자신의 범주에 맞는 작품들을 선별해낸

다. 그 선별의 기준과 관련, 저자는 이 책의 첫 장을 「소설적 변형이란 무엇인가」라고 이름 붙이면서 “여기서 나는 ‘소설적 변형’이란 범주를, 예수와 관련되거나 혹은 예수에 의해 고무된 다른 종류의 소설과 엄격히 구별하였다”라고 선언했다.

저자의 결론부터 들어본다면 “요컨대 소설적 변형은 역사적 예수 자신이 아니라 현대의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는 만큼, 소설화된 전기나 재현된 예수와 다르다. 그리고 소설적 변형은 그 행위가 기독교 신앙 속에서 발생되어온 케리그마적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에 의해 막연하게 고무된 것이 아니라 복음서들 속에 묘사된 역사적 예수의 삶에 특별히 근거되어 있는 만큼 그리스도 모방이나 그리스도의 익명들과 구별된다”라는 것이다.

예수의 삶을 다룬 서구소설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의 12세에서 30세에 이르는 침묵의 기간을 밝혀내려는 것이다. 예수의 소년기와 청년기에 대한 궁금증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신비주의자들과 소설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관심에 기초한 소설들을 저자는 소설화된 예수의 전기로 파악하는데 그것들 가운데 성공한 작품으로 치는 것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과 로버트 그레이브스의 「왕 예수」이다. 그러나 이같은 소설화된 전기들에 대한 저자의 판정은, 그 작품들의 역사적 자료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창조적 상상력 그리고 심리학적 지식들이 높이 평가하면서도, 소설적 변형보다는 전기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다.

성서적 기준에 대한 작가의 해석 중시

치올코프스키는 이어서 ‘재현된 예수’라는 범주에 들어갈 현대소설들의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것은 소설들이란 현대를 배경으로 역사적 예수가 기적으로 출현한다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때의 예수는 19세기의 가공할 산업사회의 연옥 속에서 순결한 자들이 겪는 수난을 목격하거나, 남미의 전사들과 함께 어깨에 기관총을 매거나 한다. 그것에 대해 저자는 “즉 예수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인물은 그 작품이 나타난 당대의 현실과 극적으로 대립되는 하나의 이상으로서 호소될 뿐이다”라면서 성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

한다.

이어서 저자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예수전은 ‘그리스도 모방’의 범주에 속하는 소설들이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소설들 속에서는 주인공이, 예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태어났다고 가정하고 그가 살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것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한 역사적 예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실천하는 현대적 주인공을 다루게 된다”라는 것. 그런데 저자는 이같은 소설들을 일소에 부치고 만다. “종교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설 유형은 목적성을 띤 경향소설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쁘게 보면 그것은 주일학교 수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우울한 점강법에 불과하다”

치올코프스키에게 매우 까다로운 범주는 ‘그리스도의 익명들’이다. 이 범주는 매우 넓고 모호하지만, “이 범주에 포함되는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처럼(christlike)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될 수 있다. 그것은 주로 수난자로서 예수의 성서적 사건과 구조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성서적 기준에 대한 작가의 해석이 중시되는 상대적 범주로 이해된다. 이를테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카뮈의 「이방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카프카의 「심판」 등 대중화된 현대문학의 고전들이 그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치올코프스키의 ‘소설적 변형’이란 범주가 위에서 거론된 것들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작업은 예수의 얼굴이 기독교사회주의자, 광인, 신화의 주인공, 민중의 동지 등으로 변형된 문학적 작업들을 유형화하는 것이지만, 그 기저에 흐르는 것은 예수의 삶이라는 “서구적 전통과 관습의 한계 속에서 혹은 그 한계들에 맞서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자 했던 개인의 재능”을 추출해내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의 책에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 진실이라기보다 제임스 조이스가 「율리시스」에서 보여준, 산화와 현대적 삶을 총체적으로 감싸안은 문학적 테크닉이고,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조이스의 그런 테크닉이 19세기 이후 서구소설에서 전개된 예수의 소설적 변형들을 폭넓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논증하고 싶어한다.

세계사 / A5신 / 326면 / 4800원